

2012 성탄축하 메시지

이 땅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 오신 예수님

사랑과 자비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본래 행복한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러 오셨습니다. 욕심과 집착이라는 어리석음을 버리면 행복과 평화가 넘치는 본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더불어 살아가기에 행복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세상은 나누기보다는 내 것을 먼저 생각하기에 마음의 넉넉함은 그만큼 멀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신 뜻을 살피어 나눔으로 함께 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오른손의 자비를 왼손이 모르게 하는 비움의 지혜는 이 땅에 행복과 평화를 더욱 따뜻하게 하고 다시 공덕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평화와 행복의 길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예수님 오신날, 이 땅에 사랑과 자비의 빛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불기2556(2012)년 12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 합장